

전통사찰 유네스코 등재 '첫 걸음' 땀다

국가브랜드위, 통도사 등 7곳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인 전통 사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전통사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잠정 목록 대상사찰로 법주사, 마곡사, 대흥사, 선암사, 부석사, 봉정사, 통도사 등 7곳을 선정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문화재청(청장 김찬)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하 협의회가 전통사찰 700곳 중 50곳의 사찰을 선별·답사하고 2년간의 논의 끝에 이뤄진 것이다. 전문가협의회에는 고건축 전문가인 이상희 성균관대 교수, 김봉열 한국전통문화학회 교수, 불교사 전문가 김상현 동국대 교수, 불교 측에서는 장적 스님 등이 참여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선정 이유로 "7개 사찰이 조선시대 이전 창건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화엄, 법상, 선종 등 다양한

불교사적 역사를 가졌다"며 "선교융합과 예불, 강학, 공동생활이 복합돼 불전, 강당, 승방이 공존하는 종합 수행도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국 설치... 2014년 등재 추진

운주사, 폐사지는 단독 등재 예정

9월 21~23일 관련 국제 세미나

조계종 "유산 가치 드높여" 환영

또한, 사회적 측면으로는 "조선시대 국가적 역할정책 속에서도 불교의 신앙적 전통을 유지·계승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정에 대해 국가브랜드위원회 전문가협의회 위원 장적 스님은 "더 많은 사찰이 등록됐으면 했지만, 등재를 위한 국

제적 보편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월정사, 송광사는 6.25 동란을 거치면 많은 전각들이 전소됐고, 금산사도 화재 이후 훼손이 심했다. 주로 건축물과 사적이 잘 보존된 곳을 위주로 잠정 등재 목록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운주사와 전국에 산재된 폐사지는 단독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말 전후 조사를 위한 사무국이 발족한다. 사무국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종단 내에 구성할 계획"이라며 "신청서는 올해 중 제출하고 2014년 최종 등재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오는 9월 21일부터 23일 양산 통도사에서 '한국 전통사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사찰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학

자는 물론,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결정에 불교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문화부장 진명 스님 명의로 22일 발표한 환영 논평을 통해 "한국의 전통사찰은 1700년 동안 예불, 참선, 강학 등이 행해진 수행 공간이자 역사공간이었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한국적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잠정목록 등재 대상 사찰 선정을 통해 전통사찰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종단 역시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지난해 유교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잠정 등록했으며, 내년에는 무형문화유산 등을 등록할 방침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64호 법주사석연지



법주사 석연지

임강빈

사람의 손은 거의 직선을 만든다
자연의 손은 곡선이다
곡선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 곡선을 따라 법주사를 찾는다
보은에서 안내판을 만난다
천왕문에 들어서니
금동미륵대불이 대자대비하시다

석연지는 돌로 피어난 연꽃이다
돌이파리가 파르르 떨고 있다
8각의 받침돌 위에 버섯 모양의 구름 무늬
반쯤 피어난 연꽃이 반긴다
윗부분에는 큼직한 연꽃잎을 두 겹으로 둘러 놓았다
절제된 화려함 속에 우아함을 더했다
돌로 거대한 연꽃을 만들었고
그 속에 생명의 꽃을 피어 놓았다

8세기경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되었다 한다
우선 규모부터 놀랍다
둘레는 장정 세 아름만큼 크기의 대작이다
단단한 몸 돌을 끌고 정으로 내부를 깎아 내었다
그 노고가 얼마일까
석공의 곡진한 정성이 놀랍다
석연지는 중생의 소망으로 피어났다

속리산 신록의 푸르름이 일제히 하강하고
석연지 주변을 응위하고 있다
연꽃은 더러운 흙탕물에서 자란다
극락세계로 흐르게 한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며 순결한 가슴이며〉 중에서

임강빈 시인은... 충남 공주 출생. 195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당신의 손〉, 〈집 한 채〉 등.

백양사, 이번엔 종단 감사 거부 '물의'

포살법회 날인데 7직까지 부재... 3차 감사도 무성의 일관

지난 8월 17일과 18일 진행하기로 했던 고불총림 백양사의 종단 특별감사가 주지 시몽 스님과 7직 소임 스님들의 부재로 이뤄지지 못했다.

뒤이어 진행된 3차 감사에서도 무성의로 일관해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사실상 감사를 거부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종단 특별감사를 위해 16일에 정식 통보하고 17일에 백양사로 내려갔다. 17일이 포살법회 날이었음에도 주지 스님부터 7직 소임 스님까지 모두 부재했다"며 "종무원 누구도 주지

스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종무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성토했다.

백양사의 종단 특별 감사 거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토지 회계 및 불사금 불법 전용 등으로 종단이 특별 감사를 통보했지만, 故 수산 스님 장례 등을 이유로 감사 준비기간을 요구하며 감사를 거부한 바 있다.

백양사의 사실상 감사 거부가 연이어 이뤄지자, 종무원도 이례적으로 8월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성실한 감사 이행을 촉구했다.

종무원은 입장문을 통해 "백양사는 사중의 정상적인 종무행정 집행과 안정적인 삼보정재 관리를 위해 실시된 급변 특별감사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재개된 감사도 상황은 같았다. 특별감사반이 감사를 진행하자 주지 시몽 스님은 21일 감사반에 "사중 살림에 관여하지 않았다. 보연 스님이 와야 감사가 가능하다"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에는 암도 스님 예방을 이유로 백양사를 떠났다. 특별감사반은 현재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인원 일부를 철수시켰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모바일 웹서비스 개시

종단 소식, 사찰 소개 등 구성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조계종이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시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지승)은 "8월 21일부터 종단 모바일 웹 페이지(www.buddhsim.or.kr/m)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통신 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종단 모바일 웹은 종단 소식과 포교, 문화, 결사 소식 안

내, 조계종 사찰 검색, 템플스테이 등을 불자들에게 서비스하게 된다.

종단 모바일 웹은 기존 홈페이지 하단에 '모바일 웹 QR마크'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조계종은 "모바일 웹 서비스는 차후 종단에서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탑재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영담·등운 스님

총회의원 사실상 당선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어)는 8월 23일 제257차 회의를 열고 제15대 중앙총회의원 보궐선거에 임후 보완 영담 스님(쌍계사)과 등운 스님(고운사)의 후보자 자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 없음' 판결을 내렸다. 영담스님과 등운스님은 28일 열리는 산중총회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신종일 기자

천태종 재가불자 하안거 결제식

한 달간 전국 사찰서 봉행

천태종 재가불자들이 한 달 간의 하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천태종(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은 8월 22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도용 종정 스님, 감사위원장 춘광 스님, 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제103회 임진년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이번 임진년 하안거에는 전국 천태종 사찰서 신도들이 일제히 한 달 동안 주경야선(晝耕夜禪)을 실천한다. 결제식은 9월 21일 오후 10시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열린다. 결제식에서 도용 종정 스님은 "색(色)에 물들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무량한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욕심과 번뇌 없이 정정 보살도를 행해 세상법(世上法)에 물들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한 달 동안 마음 자리 찾는 데 정진하기 바란다"고 법어를 내렸다.

김주익 기자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이 8월 22일 열린 하안거 결제식에서 법어를 내리고 있다.



제9대 총무원장 경원스님 취임식

삼보에 귀의 하옵고

금번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에서는 일불존자의 유지와 법통수호를 위해 선출된 제9대 총무원장 경원스님의 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제방에 사합니다.

- 일 시 : 불기2556(2012)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인천 라마다송도호텔
- 문 의 : 전화 02)991-8175. 8904 전승 02)991-8176

- 봉행위원회 ■ 증 명 무찰(3세종정), 지공(현원로의장), 혜운(전 재단이사장), 도기(현 재단이사), 혜천(현원로부의장), 원각(전고시위원장)
- 재단이사회 ■ 이 사 장 경원 부 이 사 장 일명 상 임 이 사 혜광 이 사 도기, 혜운, 경담, 자명
-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장 석성 동원위원장 동청 행 위 원 장 용운 분 과 위 원 고봉, 대각, 도허, 만성, 보해, 승원, 지언, 현오, 호원
- 총무원장 취임 집행위원회 ■ 총무원장 법선 추진위원장 법해 기획위원장 법성 준비위원장 도안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제 9대 총무원장 취임 봉행위원회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전화 02)991-8175 전승 02)991-8176